



성경 연구와 세계관 형성

성인경

저는 수많은 청년, 대학생, 장년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닌 햇수에 비해 신앙이 어리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사람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거나 세계관적인 기초가 세워지기 힘듭니다. 성경은 신앙과 세계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초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1)성경과 세계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2)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3)그 후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지 살펴보고, 4)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탁월한 세계관이며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 경전(經典)으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양식으로 믿습니다. 옳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계관이며 철학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문적인 세계관 책이거나 철학 책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사상보다 탁월한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철학 중에 철학입니다. 사실 성경은 철학과 동일한 문제를 다루지만 대답과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철학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철학이 다루는 문제와 기독교가 다루는 문제 사이에 차이점이란 거의 없다. 기독교와 철학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존재에 관한 문제와 인간과 그의 딜레마(도덕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목해야 할 두번째는 철학이란 단어에는 항상 분리되어 이해되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철학이란 단어의 첫번째 의미는 학문의 한 분야로써 인류 중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전문적인 학문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그러나 철학이란 단어에는 유의해야 할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한 사람의 철학--은 그의 세계관(worldview)과 같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며 그렇기에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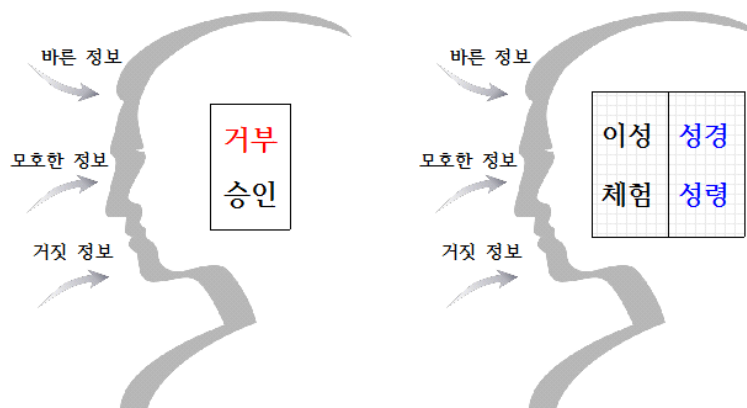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적인 점이다. 기독교인들도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철학을 경멸한다. 철학을 인류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관련된 학문의 한 분야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인간이 세계관 없이 산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

쉐퍼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비록 용어와 대답이 다르지만 탁월한 세계관이며 철학 중에 철학입니다. 만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세계관을 공부할 수 없으며, 철학다운 철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동양에서는 불경이나 공자의 책을 읽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 없듯이, 서양 철학은 성경이 없이 철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경을 공부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세계관을 배우고 철학다운 철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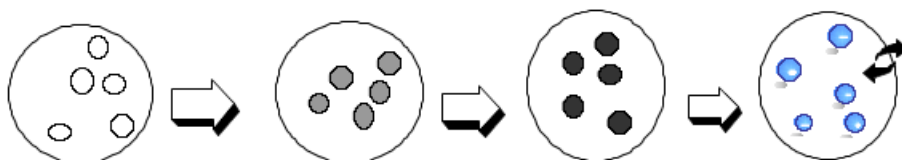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인데, 1)정보(신념) -> 2)지식(확고한 신념) -> 3)세계관(철학)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도 세 단계를 그친다고 할 수 있는데, 1)타락한 이성과 체험만으로 각종 정보와 신념을 습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 2)성경과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서 참 지식 혹은 확고한 신념을 얻어야 하며 -> 3)지속적인 순종과 실천을 통해 기독교적인 세계관 혹은 철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²⁾



다음은 인간의 이성과 체험 그리고 세계관 형성 과정에 대한 김종철의 설명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 특히 지성(intellect)과 의지(will)가 왜곡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중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왜곡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futile)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darkened) 우둔해지고(fool)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버렸다고 하고 있다(롬1:21-23).

1) 프란시스 쉐퍼(Francis August Schaeffer), '철학의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Basic Philosophical Questions and Christian Answers)', 김종철, 박진숙 역, 라브리퍼지
 2) 세계관의 형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철의 '세계관 정립과정'이란 글이나 Alvin Plantinga, Warranted Christian Belief(Oxford, 2000), 206-216를 참고하라.

플랜팅가(Alvin Plantinga)는 이것을 죄의 인지적 효과(noetic effects of sin)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념이 죄로 말미암아 참되게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예로 들자면, 칼빈과 로마서 1:20에서 나타난 바울의 전통에 따라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mind)이 있다는 신념이나 물리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신념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순종, 실천

순종, 실천

순종, 실천

중요신념 형성 -> 철학적 함의 도출 -> 실천적 함의 도출 -> 중요신념 확대, 강화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상황은 어찌 보면 거짓 정보의 범람과 인지 기관의 오작동(malfunction)이라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과 성경의 도움으로 중요한 신념들의(철학적)함의들을 도출하려고 할 경우, 앞의 상황은 오히려 중요한 신념들이 현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왜냐하면 성경(text)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 할 때 성경 이외의 정보들(context로 총칭 할 수 있다)은 몽학선생과 반면교사反面教師 역할을 하여 우리가 형성한 중요한 신념들의 의미를 비교와 보완으로 더 생생히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김종철씨가 이야기 하는 대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는 이성과 체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세계관 형성에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른 세계관을 형성케 해 주는 내부원리인데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지식의 영이시며, 생각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조명(illumination)의 영이십니다.³⁾

이것을 세계관적인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인(人), 물(物), 신(神)으로 구성된 학문의 원리와 성령, 성경, 신앙으로 구성된 신학의 원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학문과 신학의 원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은 '내부 원리'와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외부 원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모든 원리의 기본이 되는 '근본 원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바빙크(Herman Barvinck)에 의하면, 성령이 신학과 세계관 형성의 "내부 원리"라면 성경은 "외부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⁴⁾

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요한복음 16:13-15)

4) Herman Barvinck, 차영배역, 신학의원리, 총신대출판부, 92, 93, 386.

학문 원리	신학 원리
내부 원리 : 인간 (경험, 이성)	* 성령
외부 원리 : 만물 (세상, 자연)	* 성경

근본 원리 : 종교 (경배, 영성)	* 신앙

3. 어떻게 성경을 세계관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이 구원만 아니라 바른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진리의 체계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성경관을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1)성경은 참 진리입니다.(true truth). 2)성경은 명제적 진리입니다.(propositional truth) 3)성경은 절대적 진리입니다.(absolute truth) 4)성경은 현실적 진리입니다.(realistic truth) 5)성경은 인식 가능한 진리입니다.(knowledgeable truth)

짧은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성경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 형성만 아니라 교회, 선교, 사회 운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성경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만 아니라 모든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관을 가졌는가?’라는 것은 신앙의 색깔만 아니라 세계관의 색깔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경을 다른 많은 고대문서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성경 천시 시대에는 성경무오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관 운동을 하는 거의 모든 단체의 성경관은 대체로 복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관의 차이로 인한 첨예한 갈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대화나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성애나 창조론과 진화론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앞으로 더 세부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성경무오설에 대한 신학적, 감정적 갈등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선언문에 기초한 라브리선교회의 공적인 성경관을 따릅니다.⁵⁾

2)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매일 영적 양식을 먹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시대와 개인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와 인간을 보시는 관점, 즉 하나님의 세계관적인 핵심 사상을 찾고 그것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탁월한 세계관 공부의 최고의 텍스트인데 규칙적으로만 아니라 편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라브리선언문(THE L'ABRI STATEMENTS) cf.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Hermeneutics -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ICBI) Copyright 1982.

예를 들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잘 알려진 대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론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의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항할만한 이념이나 진리 체계가 전무하던 시대에 ‘기독교는 삶의 체계로서 혹은 세계관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요 복음이다.’는 것을 선포한 책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성, 지성의 타락, 구원의 과정 등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태도, 이스라엘의 장래, 성도의 일상 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와 일상 문제에 대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른 대답과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성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인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변증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최고의 세계관 교과서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구약 시가서(詩歌書)를 공부했는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욥기] 등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는 기독교세계관의 정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참 지혜란 무엇인가, 거짓말의 문제, 돈의 파워, 친구를 사귀는 법, 공부하고 일하는 태도, 교육 방법 등 일상적인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세계관 교과서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면서도 매우 다양한데, 세계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각권의 책은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이므로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개인에 따라 새로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주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세부적 진리는 아니지만 인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과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9:13-18을 읽고 우리 시대의 화두인 냉소주의(cynicism)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몇 가지 대안입니다. a)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b)네가 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c)작은 것을 즐겨워하라. d)자기 일, 본분에 충실 하라. 청년들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며, 어른들의 본분은 흠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e)전도서의 12 가지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절망과 허무로 끝난다는 등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4. 저의 성경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양식만 아니라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적용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한 후에 하기도 합니다.

2) 성경을 여러 번 읽습니다. 주로 영어 성경(ESV)을 읽는데, 전체 문맥과 줄거리가 이해될 때까지 두 번 혹은 세 번을 읽습니다. 원문으로 읽고 싶을 때는 원영 혹은 원한 대조 성경(Interlinear)을 찾아 읽습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성경을 매일 석 장 혹은 녁 장을 평생 읽었

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한 장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그 중에 몇 구절은 별도로 연구합니다. 가족과 함께 읽을 때는 각자에게 알맞게 순서에 따라 조금만 읽는 것이 좋습니다.

3) 본문을 관찰합니다. a) 해당 성경이 설화체(이야기, 역사)인지 강화체(설교, 강의)인지에 따라서, 설화체는 주로 '6하 원칙,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등'에 따라 관찰하고, 강화체는 주로 '문법공부의 원칙,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등'에 따라 관찰합니다. 기본 관찰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b) 이 때 특정 단어나 구문이나 문장을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3:1-2을 보면 다윗이 적이 "많다(라보임, labboim, many)"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많다"라는 말이 두운입니다.

how many are my foes
many are rising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y soul (ESV)

그것이 다시 3: 5, 6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up again,
I will not fear (NIV)

4)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면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서 자주 찾아 볼 필요가 없겠지만, 건전한 성경 사전이나 배경 사전(신구약 배경 사전, IVP 참조)을 통해 당시의 문화, 역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베드로후서 1:8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화와 배경이 있는 말인지 배경 사전이나 배경 신학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22-23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기본덕목(cardinal virtues)'이라 하여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처럼 아홉 가지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네 가지도 아니라 여덟 가지 덕목을 이야기 한다는 의미에서 독특합니다.

5) 구속사적 혹은 신학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속 역사의 전 과정에서 갖는 의미, 즉 구속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8의 "신의 성품"을 복수형으로 "이런 것들, ταυτα, these things"(베드로후서 1:8)이라고 불렀으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단수형으로 "이 같은 것들", τοιούτων, such as this(갈라디아서 5:23)이라고 썼는데, 왜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신학적 구속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즐줄이 맺힐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아마 플라톤이 "만일 기본 덕목들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싶으면 모든 기본 덕목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한 사상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 하나씩 하나씩 맺힌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툼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324)

6)세계관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세계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13-18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헛되다”고 하는 말인 “헤벨”이란 단어는 ‘헛되고(vain)’, ‘덧없으며(fleeting)’, ‘무익하고(futile)’, ‘무의미한(meaningless)’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조리하다(absurdity)’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것으로 번역을 하던 이것은 허무주의 혹은 그 이상의 냉소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는 말씀

바울 사도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디모데(Timothy)라는 사람은 “디모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성경공부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 후서 3:14-17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누군가로부터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성경을 배우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하고 온전한 사람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훌륭한 종교서적이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생각이 반듯하고 생활이 질서가 잡힌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와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경륜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성경 연구, 설교 경청, 묵상과 순종을 통해 맺힌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누구보다 세상을 반듯하게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